

##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말씀: 잠언 29:1-7

요절: 잠언 29:2

오늘 잠언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이란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도덕이나 인격 수련이나 사람의 성품을 단련하는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신 수양, 마음 수련, 도덕, 인격을 위한 영적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법을 다루는 법전이며, 정치를 다루는 정치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주(主)시오, 왕(王)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런 왕국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신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에 관한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와 경제, 사회, 복지 등 실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거나 권세를 잡는 것 역시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직무를 받았습니. 아담의 직업은 농사꾼이나 상인이나 학자나 예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느냐?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는 죄를 지음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요14:13). 현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릅니다.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립니다(계1:6,5:10).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통치하는 왕국, 다가올 세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히2:5). 이 구절은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은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현 세상은 아담에게 맡기셨지만 아담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주 예수님과 그분이 성도들이 통치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이란 말은 예언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신정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웃시아,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을 말합니다. 이런 왕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백성들은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빵이 풍성했습니다(경제). 신약 시대에 이 구절을 적용해서 크리스천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신정 국가가 아니고, 주의 법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천이 행정, 사법, 입법부에서 권세를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거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왕들이 권세를 잡으면 주께 복을 받습니다. 주의

## 잠언(107)-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지고 포로가 되거나 주리게 됩니다. 잠언 28:15절,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잠 28:15). 이 구절은 정치와 백성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2절,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잠29:2).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10절,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잠11:10,11).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권세를 잡도록 투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1).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하지 책망, 꾸짖음, 비난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책망을 전혀 원치 않고, 멸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합니다(잠10:17).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잠12:1).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잠13:1). 성경은 경고하기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잠15:10)고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잠13:18).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잠15:5).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합니다(잠15:31).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잠15:32). 주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셨습니다(마11:20). 주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마17:18). 주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눅4:39).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눅9:55).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딤후5:20).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딤후4:2).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게 됩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잠1:23).

2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2).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백성들에게 사악한 통치자를 주시고, 의로운 백성들에게 의로운 권세자를 주십니다. 한 나라의 국운은 그 국민이 어떤 통치자를 갖느냐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봉건 국가 뿐 아니라 현대의 민주 국가에서도 왕이나 통치자,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미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잠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잠 28:12).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숨을 죽이게 됩니다. 나찌가 일어나고,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 잠언(107)-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독재자들이 일어나 다스릴 때 백성은 숨습니다. 그들은 애곡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잠28:28). 정치는 백성들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왕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나 그의 길을 따라 걸었던 왕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적들을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고 사방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악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백성들의 삶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현대사의 우리 조국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이후, 전후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보십시오. 똑같이 해방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를 했고 남한 이승만이 통치자로 다스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남은 북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몇 배나 컸습니다. 북의 통치자는 계속해서 김일성이었고 그 때 남한은 박정희였습니다. 남과 북은 똑같은 군사 정권,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양지차가 났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 문화수준은 물론이고 자유의 수준이 다릅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2). 이곳 미국도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나 주지사, 상하원, 시장 선거를 할 때 누구에게 권력을 주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사악한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사19:4).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같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땅에서 헤롯이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3).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고전3:19). 세상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요, 마귀적이며 관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약3:15).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약3:17). 지혜를 사랑하는 자란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잠28:7). 주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마7:24)고 하셨습니다. 지혜란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그 사람을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잠언 4: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잠4:6).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잠19:8).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걸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엡5:17)고 하십니다.

다시 3절입니다.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3).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 하는 자가 있지 못할 지니”(신23:17).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창녀도 많았고 남색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는 창녀들이 넘치고, 남색하는 것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삿11:1). 솔로몬의 재판은 창녀인 두 여자가 낳은 아이를 두고 친모를 밝혀내는 재판이었습니다(왕상3:16). 당시 예루살렘에 창녀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몸을 파는 창녀 외에 영적 음행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일컬어 창녀라고 하였고, 백성들을 창녀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21절,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사1:21).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7:3절, “그러나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씨야,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나아오라.”(사57:3).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창녀 짓을 행했다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창녀들과 사귀는 자”란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악한 교제, 어둠의 교제, 불법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는 자거나 술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고전5:11). 예언적으로 “창녀들과 사귀는 자”란 음녀를 일컫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계17:5).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순결한 처녀로 주님과 정혼한 사이요, 그분의 신부입니다.

4절입니다.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4).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형통하게,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판단의 공의란 주의 율법을 말합니다. 잠언은 사이사이에 정치, 정치인, 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법치주의를 따르고 법에 따른 통치를 하면 그 땅은 굳건하게 됩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때 그 땅은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8: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삼하8:15).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사9:7)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렘23:5).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 세우실 한 왕국에서의 통치를 말합니다(렘33:15). 지금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교육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꿈꾸는 이상 사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세울 왕국에서 집행됩니다. 예레미야 33:15절,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

하리라.”(렘33:15).

“...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4). 위정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 땅은 부패하게 되고, 사람들은 사악하게 되며, 선과 악은 급게 됩니다. 율법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급게 만드느니라.”(출23:8)고 합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급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뇌물은 재판을 급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됩니다.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욥15:34).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전7:7).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뇌물에 마음이 끌립니다.

5절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침하는 자는 자기 밭에 그물을 치느니라.”(5). 성경은 거짓말과 더불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아침하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에게 아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소위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팬들 앞에 서면 갖은 아침을 다 쏟아냅니다. 장사치들은 소비자들을 일컬어 ‘손님은 왕’이라고 아침을 뱉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 아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 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잠26:28). 아침과 칭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침은 거짓 칭찬입니다. 아침은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이나 아침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엡4:25).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고, 아침하는 자는 자기 밭에 그물을 칩니다. 자기 밭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울무에 묶이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침하는 말의 대표격으로는 헤롯에게 연호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연설할 때 환호하며 이렇게 아침했습니다.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행12:22). 헤롯은 그 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습니다(행12:23).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아침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기엔 아침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믿음은 거짓, 아침, 비난, 욕설 등 각양 헛된 것을 막아 주고 치료하는 강력한 면역제입니다.

6절입니다. “악한 자의 범법에는 울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6). 악한 자의 범법에는 울무가 있다는 것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22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잠 5:22). 악한 자의 범법, 불법은 자기에게 울무가 되고 자기를 매는 줄이 됩니다. 잠언 11:5,6절,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견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니.”(잠11:5,6).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자기가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린 예입니다(잠12:13). 전도서 10:8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니.”(전10:8).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집행하시는 심판이요,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라미와 불과 유행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시11:6).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6). 의로운 자에게는 언제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노래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이다.”(약5:13).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행16:25).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병실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에베소서 5: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엡5:19). 언제나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기도할 것들이 있고 감사할 것들이 있고, 언제나 노래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일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골3:16). 우리는 슬픔의 노래, 한(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7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7).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며, 사도들이 열심히 행하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갈2:10). 사도 바울은 복음만 부지런히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도 열심히 행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 그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신약 교회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행20:35).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제쳐두고 사회 사업이나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이 점에서 단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 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략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욥29:15-17).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41:1절,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시 41:1).

“...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7). 사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좌파 정부는 복지를 내세움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난 속에 뚫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젠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막14:7).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

### 잠언(107)-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이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은 의로운 자들의 몫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잠언 19: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풀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잠19:17). 사람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거나, 얼굴을 돌리면 주께서는 그가 부르짖을 때 들어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 줄 자가 없으리라.”(잠21:13).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일은 직무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3).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돕지 않고, 살피지 않는 성도는 사악한 성도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과 관심, 애정, 섬김,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딤후6:18). 주님은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히13:16).